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음

12/16 월요일

아침의 누림

마 28:18

18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엡 1:20

20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고후 13:10

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사람들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 22:1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 20:26-28

26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27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2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마 24:45

45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앉게 되신 곳이며 가장 존귀한 곳, 곧 최고의 권위가 있는 곳이다(엡 1:20 각주 3)

영적 권위'는 공식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무언가를 가리킨다. 우리는 장로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할 때, 그 권위가 공식적인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이 공식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다. ... 권위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계급이나 지위가 없다. 공식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지위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장로들이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절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재검토해야 한다. 히브리서 13 장 17 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결산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혼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탄식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신약의 이 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절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의 권위가 아닌 그들의 인도에 순종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2권, 장로 훈련, 4권, 주님의 회복의 실행에 관한 몇 가지 중점, 8장, 545, 54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이외의 요소들이 존재할 때, 어떤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선한 점들이 있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칭찬을 받으며,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심지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심이 넘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권위도 없다. 권위는 교회 안에 있으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며,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 또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권위가 있는지를 결정한다.(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2장, 45 쪽)

주님은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과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위를 부활하신 후에 받으셨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문들이 닫힌 방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다(요 20:19).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제자들은 생명의 의해 강건하게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 곧 거룩한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20:22). ...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틀림없이 주님은 밤이 아닌 낮에 그 산에서 그들을 만나셨을 것이다.

더욱이 주님은 산에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거룩한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은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를 다룬다. 요한의 관심은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호흡을 요구한다. 그러나 마태의 관심은 왕국에 있었고, 왕국은 권위를 요구한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린양들을 돌보고 주님의 양 떼를 먹이기 위해 생명이 필요함을 계시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는 어린양들을 먹이는 것에 관한 말씀이 전혀 없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모든 민족을 왕국의 일부로 만드시기 위해 그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28:19). 이것에는 권위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부활은 생명과 능력과 호흡과 목양의 문제이지만, 마태복음에서 부활은 의와 권위의 문제이며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문제이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72, 312-31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72

## 12/17 화요일

### 아침의 누림

#### 마 28:19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 마 16:19

19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 마 18:17-19

17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십시오.

18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며,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19 다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 마 12:28-29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29 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하겠습니까?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철저히 강탈할 것입니다.

---

주님께서 모든 권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왕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간다.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왕국,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방인들을 왕국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민족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에 주목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민족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 복음 전파는 단순히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민족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는 것은 이방인들을 왕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그분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은 왕국의 문제이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72, 313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것은 ... 우리가 신성한 권위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 주님은 우리에게 묶고 푸는 권위를 주셨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마 16:19) 마태복음은 권위의 문제인 천국에 관한 것이다. 이 책에 계시된 교회는 통치하는 왕국을 대표한다. 따라서 묶고 푸는 권위가 16 장 19 절에서 교회를 위해 사도인 베드로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에게도 주어졌다(18:17-18).

마태복음 28 장 18 절과 19 절은 우리가 신성한 권위에 참여한다는 것을 계시하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이다. ... 하늘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주 예수님은 모든 권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서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5, 9 쪽)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것은 ... 우리가 신성한 권위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 주님은 우리에게 묶고 푸는 권위를 주셨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마 16:19) 마태복음은 권위의 문제인 천국에 관한

것이다. 이 책에 계시된 교회는 통치하는 왕국을 대표한다. 따라서 묶고 푸는 권위가 16 장 19 절에서 교회를 위해 사도인 베드로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에게도 주어졌다(18:17-18). 마태복음 28 장 18 절과 19 절은 우리가 신성한 권위에 참여한다는 것을 계시하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이다. ... 하늘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주 예수님은 모든 권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서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리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5, 9 쪽)

마태복음 12 장 28 절과 29 절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하겠습니까?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철저히 강탈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28 장 18 절과 19 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주고’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러므로’를 힘주어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는 모든 권위가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러한 이유로, 즉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다만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마태복음 12 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탄은 강한 자, 곧 모든 사람을 강탈하는 자이다. 오늘날 전

세계는 사탄의 강탈하는 손과 어둠 아래 있다. 복음을 전하여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사탄의 강탈하는 손에서 그의 살림살이를 강탈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자인 사탄을 묶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능력뿐 아니라 권위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찰을 예로 들어 능력과 권위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도로 위의 차에는 능력이 있지만, 경찰에게는 권위가 있다. 어떤 차에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경찰이 지시할 때 차들을 통제하는 권위는 경찰에게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5 년, 1 권,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함, 3 장, 335, 33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5 년, 1 권,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함, 3 장

## 12/18 수요일

### 아침의 누리

#### 행 2:38

3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 행 19:5

5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 행 8:12, 36, 38

12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나 여자나 다 침례를 받으니,

36 그들이 길을 따라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무엇이 막겠습니까?”라고 하니,

38 그래서 내시가 명령하여 마차를 세우게 하였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갔으며,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 행 10:44, 48

44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48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 엡 1:13

13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 갈 3:14

14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침례자 요한의 천거하는 사역은 다만 물로 주는 예비 단계의 침례로 시작되었다. 이제 하늘의 왕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제자가 된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72, 313-31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침례는 물로 하는 보이는 방면과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방면, 두 방면이 있다(행 2:38, 41, 10:44-48). 보이는 방면은 보이지 않는 방면의 표현이요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보이는 방면의 실재이다. ... 두 방면이 모두 필요하다. 주님은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서 제자들에게 침례를 명령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온 교회에게 침례를 주셨는데(고전 12:13), 오순절 날(행 1:5, 2:4)에는 유대인들에게, 고넬료의 집(11:15-17)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셨다. 그 후 이것에 근거하여 제자들은 새로 주님께 돌이킨 사람들(행 2:38)을 물속으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롬 6:3-4),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갈 3:27), 삼일 하나님 안으로(마 28:19),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고전 12:13) 침례를 주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 물은 침례 받는 사람들의 옛 역사를 종결하는 무덤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골 2:9) 삼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들을 새 생명, 곧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발아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침례는 천국을 위해,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에서 나와 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침례 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서 ‘안으로’는 로마서 6 장 3 절, 갈라디아서 3 장 27 절에서와 같이 연결을 가리킨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 8 장 16 절, 19 장 5 절, 고린도전서 1 장 13 절과 15 절에서 사용되었다.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그분과의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께 하나의 이름이 주어졌다. 그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72, 314-315 쪽)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생명을 위해서는 본질적이시고, 능력을 위해서는 경륜적이시다. 이 영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 복으로(갈 3:14) 그들에게 주어지며(엡 1:13, 갈 3:2), 그들이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도록 하신다(고후 13:14).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공급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삼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을 받았다. 이것은 이 영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여기에서 그 영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고도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에서 본질적이고도 경륜적인 것이며, 사도행전 8 장 15 절부터 17 절까지와 19 장 2 절부터 6 절까지에 언급된 그 영을 받는 것, 즉 특별히 믿는 이들 위에 경륜적으로 내려오시는 그 영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행 2:38 각주 6)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5

**12/19 목요일****아침의 누림****마 1:1**

1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마 4:17**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렘 23:5**

5 참으로 그날들이 오고 있다.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순을 일으키리니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현명하게 행하며 땅에서 정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사 9:7**

7 다윗의 보좌 위에서 그분의 왕국 전역에서 그분의 통치가 끝없이 확장되고 그분의 화평도 끝이 없으리니 이제부터 영원히 정의와 의로 왕국을 굳게 세우시며 불드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행 13:22-23**

22 그를 물러나게 하신 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23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 3:3, 5**

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마태복음 4 장 17 절은 복음이 요한복음에서처럼 생명의 방식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처럼 왕국의 방식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움직이실 영역이자 범위인 왕국이 필요하시기 때문이다. 심지어 생명의 복음인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3:3, 5).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복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려면, 왕국이 필요하시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명으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받아들인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왕-구주, 마가복음에서 노예-구주, 누가복음에서 사람-구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구주를 본다. 우리가 회개하여 왕-구주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예-구주이시고 사람-구주이시며 하나님-구주이신 그분을 소유할 수 없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5, 13-1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반역적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반역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반역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만일 우리가 반역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는 반역자들이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권위로, 즉 우리의 주권자와 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그분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를 안팎으로 다스리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 1 장 1 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복을 위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제시되지 않으시고, 왕국을 위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제시되신 것이다.

일단 왕국이 있으면, 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영역이자 범위가 된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 좋아하지만, 그 복이 하나님의 권위의 범위, 곧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는 범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한 범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길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으면서 그분을 우리의 주권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먼저 왕국을 위한 다윗의 자손이 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셔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먼저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분의 왕의 신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왕권과 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분은 단지 구주로서가 아니라 왕-구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왕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의 권위와 행정 아래 있지 않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그분의 행정 아래에서, 즉 그분의 왕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저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최고도로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곧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참이삭,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분 또한 계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왕국이 있다면 복도 있으리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완결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누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수록, 더욱더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누리게 된다.

마태복음 28 장 19 절은 믿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 안으로,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시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소유하는 한, 우리는 삼일 하나님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성한 왕국 안에 있는 신성한 복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5, 14-1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믿는 이들에게 왕국이란 무엇인가, 5 장

12/20 금요일

아침의 누림마 3:16-17

16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이다.”

고전 15:50

50 형제님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피와 살로 된 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갈 3:16, 27, 29

16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해 주실 때에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 씨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너의 씨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분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29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엡 1:13-14

13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14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

요한복음은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도록, 특별히 14 장부터 16 장까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에 계신 신격의 비밀을 계시한다. 한편 마태복음은 왕국을 구성하기 위해, 셋 모두에게 한 이름을 부여함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실재를 열어 보여 준다. 마태복음 1 장에서 성령(18 절)과 그리스도(아들-18 절)와 하나님(아버지-23 절)께서 사람 예수님을 산출하시기 위하여(21 절) 함께 계시는데, 이 사람 예수님은 여호와 구원자이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다. 3 장에서 아들은 열린 하늘 아래 침례의 물속에서 계셨고, 그 영은 비둘기같이 아들 위에 내려오셨으며, 아버지는 하늘에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광경이 제시된다(16-17 절).(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72, 31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2 장에서 아들은 사람의 신분으로 그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가져오셨다(28 절). 16 장에서 아버지는 왕국의 생명 맥박인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 아들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셨다(16-19 절). 17 장에서 아들은 변형되셨고(2 절)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확증되셨는데(5 절), 이로써 왕국의 출현의 축소판을 보여 주셨다(16:28). 결국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거쳐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부활의 분위기와 실재 안에서 돌아오시어 제자들에게,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 인격, 실재

안으로 이방인들을 침례 주어 그들을 왕국 백성이 되게 하라고 분부하셨다. 그 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이고(행 8:16, 19:5),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임(갈 3:27, 롬 6:3)이 계시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또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으므로(고전 15:45),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그분 안으로 침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실재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왕국은 땅에 속한 사회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진(고전 15:50) 사람들로 형성될 수 없다. 하늘에 속한 왕국은 오직 삼일 하나님과의 연결 안으로 잠긴 사람들과 그들 안으로 일해 놓여지신 삼일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건축된 사람들로만 구성될 수 있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72, 315-316 쪽)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마 1:1)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도록 신성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신다. ... 아브라함의 씨(갈 3:29)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다(16 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 곧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상속받는다. 이 복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 곧 우리의 몫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다.

믿는 이들의 신성한 유업(행 26:18)은 ... 삼일 하나님 자신과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구속된 자기 백성을 위해 이루실 모든 것이다. 이 삼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고(골 2:9), 이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된 몫이시다(1:12).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시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업의 보증이시다(엡 1:13-14).(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5, 10-1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5

12/21 토요일

### 아침의 누림

**마 28:20**

20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마 1:23**

23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마 18:20**

20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일 5:11-12**

11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 14:18-21**

18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19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21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

제자들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명령을 받았다. ...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믿는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기 위한 것이다(마 28:19-20).

하늘의 왕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마 1:23). 마태복음 28 장 20 절에서 주님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곧 이 시대의 끝까지 모든 권위를 가지고 부활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으로 모이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18:20).

주님의 승천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16:19)과 누가복음(24:51)에만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시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한 분으로서, 주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실 수 없고, 떠나시려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신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항상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실 하늘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승천이 언급되지 않는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72, 316-31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왕국 백성과 함께 왕으로서 왕국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항상’에 포함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단 하루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주님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시대가 종결될 때는 주님의 파루시아의 때, 곧 주님께서 임하시는 때인 이 시대의 끝을 가리킨다. 이 시대가 종결될 때, 곧 이 시대의 끝은 대환난의 때일 것이다. 우리는 그 시기에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파루시아 곧 그분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왕국의 문제이다.

왕국은 주님의 부활 안에 그분의 의와 함께 존재하며, 우리는 민족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는 권위와 위임과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왕국이 확장되고 있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72, 317 쪽)

사역을 위해서는 생명의 공과를 체험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건축 재료들을 모으고 준비하고 산출하기 위해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교회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역이 있어야 한다. ...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은사들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디모데전후서의 때에 교회의 행정과 건축을 위해 요구되었던 것은 공과들을 배우는 것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딤후 3:15)라고 말했다. ... 교회의 행정은 외적인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두 서신에서 배움, 가르침, 훈련, 연습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러한 것들은 은사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여 공과들을 배움으로 얻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다른 종류의 그릇들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알기를 배워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사역은 우리가 이미 배운 공과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교회의 건축에 있어서 은사는 거의 쓸모가 없다. 교회를 건축하는 길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 주는 생명의 공과를 배우는 것에 달려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지연하실 것인가, 아니면 속히 오실 것인가는 전적으로 교회가 건축되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 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부흥사들이 복음 운동과 부흥회를 통해 유명해졌지만, 생명의 공과를 배운 이들은 거의 없다. 만일 기독교의 인도자들에게 영적 배움이 많지 않다면, ‘단지 교회를 다닐 뿐인 일반 신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건축을 말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오늘 교회의 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57년, 3권, 영문판, 393-39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57년, 3권, 영문판, 386, 394 쪽

###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5

### 12/22 주일

#### 아침의 누림

행 2:38-43, 46-47

3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39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40 베드로가 이 밖에도 많은 말로써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고, 또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권유하니,

41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약 삼천 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다.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43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이 일어났다.

46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47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

### 찬송: 917 (英) 어두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

1 어두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 이대로 모두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가서 구원을 전하랴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서

(후렴)

"모든 권위를 나에게 나에게 주시었으니

온 세상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 늘 너희와 함께하리."

2 세상을 보라 열린 문을 보라 주의 군사여 일어나거라

깨어서 함께 복음 위해 나가 최악의 사슬 끊어 주어라

3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 주 이름 안에 반항하여라

우릴 구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과 구원 가서 선포해